

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3. 7월]

- 국제농산물 가격, 'Weather Market' 본격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-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동향

- [원자재지수] 6월 S&P GSCI는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8개월 만에 소폭 반등. 에너지 부문이 반등을 견인한 가운데 산업금속은 강보합, 농산물은 하락
 - 부문별로 에너지 +5.3%, 산업금속 +0.2%, 농산물 -5.3%, 귀금속 -2.6%, 축산물 +6.5% 등
 - 6월말까지 누적 상승률 : 에너지 -14.8%, 산업금속 -9.6%, 농산물 -14.6%, 귀금속 +4.7%
- [품목별] WTI+3.7%, 美천연가스 +23.5%, 유럽천연가스 +43.9%, 亞휘발유 +4.9%, 옥수수 -6.6%, 소맥 +7.1%, 원당 -8.7%, 구리 +2.8%, 니켈 -0.3%, 아연 +6.2%, 금 -2.2% 등
 -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노르웨이 LNG 수출항 가동 중단 등으로 7개월 만에 큰 폭 반등

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국제유가는 연준의 매파적 성향,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현재의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, 주요국 경제지표 회복세가 확인된 이후에 반등이 본격화될 전망
 - 러시아 원유수출이 최근까지 견조세를 유지하면서 공급난 미발생. 반면 중국 정부가 민간 정유사들에게 원유수입 쿼터를 20% 상향함에 따라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 증가
- [곡물] 국제곡물가격은 우려했던 '파종 후 기상악화'가 가시화된 가운데 정치적 변수(흑해 곡물협정)가 가세함에 따라 상방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며, 날씨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가격 진폭도 크게 확대될 소지
 -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를 반영한 주요 기관들의 '23/'24년 세계 곡물수급 전망 조정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- [비철금속] 세계경기 부진과 긴축적인 금융환경 등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하방압력이 높아질 전망. 다만 현 수준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낮으며,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상존
 -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 규모와 미국 달러화 향방이 비철금속 가격에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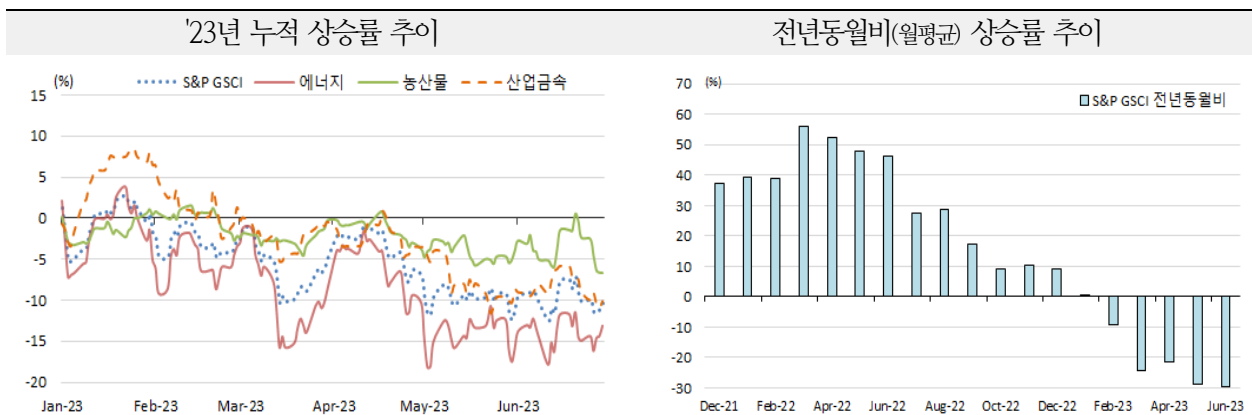
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□ S&P GSCI 추이

- 6월 S&P GSCI는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8개월 만에 소폭 반등. 에너지 부문이 반등을 견인한 가운데 산업금속은 강보합세, 농산물은 하락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5월말	6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말비(%)
S&P GSCI*	528.22	540.46	+2.3	-11.4	-23.8
에너지	233.06	245.35	+5.3	-14.8	-33.6
농산물	424.33	401.99	-5.3	-14.6	-15.3
산업금속	407.23	408.04	+0.2	-9.6	-6.8
귀금속	2575.45	2507.57	-2.6	+4.7	+7.3
축산물	383.33	408.15	+6.5	+14.3	+21.3

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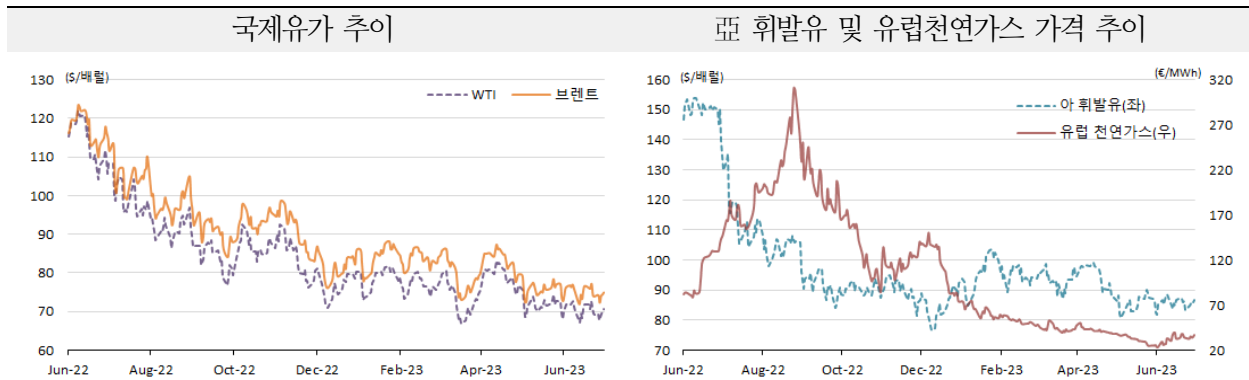
2. 원유

□ [6월 시황] WTI 전월말 대비 +3.7%, 2월 휘발유 +4.9%, 유럽 천연가스 +43.9%

-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요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. 사우디가 단독 감산을 결정했으나 연준의 매파성향 강화로 상쇄
- 아시아 휘발유 가격은 박스권 흐름 속 강보합.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무더위와 노르웨이 LNG 수출향의 가동 중단(·가스누출) 등으로 7개월 만에 큰 폭 반등

품목	5월말	6월말	전월말비 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WTI(\$)	68.09	70.64	+3.7	-12.0	-33.2	94.33	74.82
브렌트(\$)	72.66	74.90	+3.1	-12.8	-34.8	99.04	79.96
두바이(\$)	72.09	76.05	+5.5	-3.3	-33.9	97.03	78.57
美휘발유(\$)	107.52	110.63	+2.9	+7.1	-27.8	124.67	107.59
亞휘발유(\$)	82.51	86.57	+4.9	-6.3	-37.9	109.73	91.46
美천연가스(\$)	2.266	2.798	+23.5	-37.5	-48.4	6.542	2.532
유럽천연가스(€)	25.50	36.70	+43.9	-50.4	-74.5	132.34	43.99

주 : NYMEX: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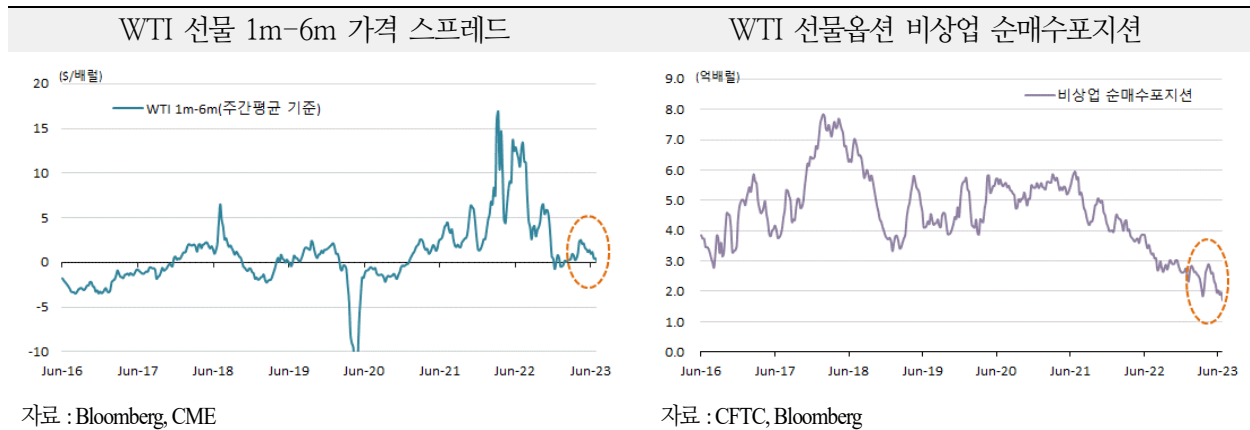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C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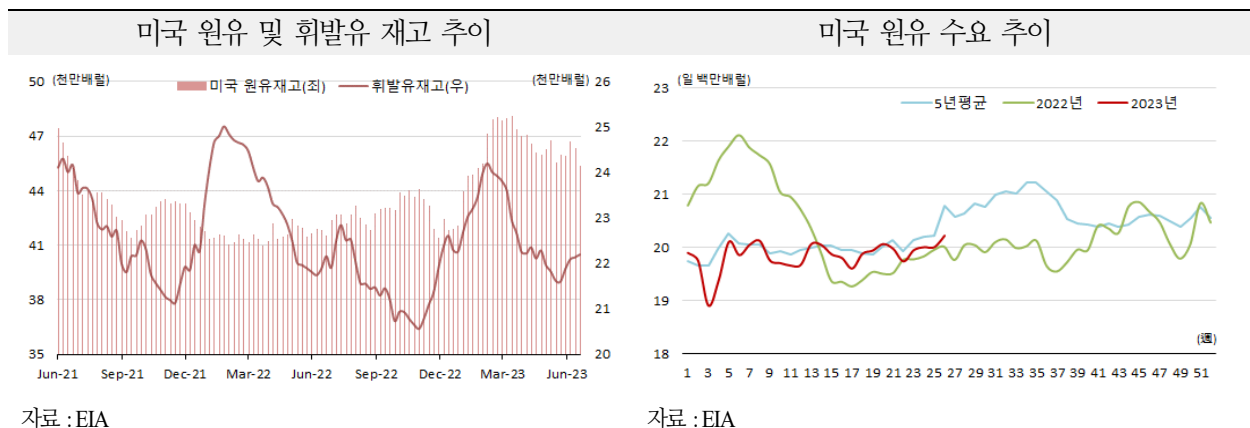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- WTI 선물시장 지표 : 백워데이션 약화, 금융투자자 순포지션 감소
 - WTI 근월물과 6월물 가격 스프레드는 6.30일 \$0.14로 4월 중순(\$2.47) 대비 큰 폭 축소. 주요 기관들은 하반기 수요회복을 예상하나 시장은 이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
 -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5.30일 1.95억배럴 → 6.27일 1.70억배럴로 감소. 엇갈린 수급전망 속에서 매수 포지션은 큰 변동 없으나 매도 포지션이 증가



- 미국 실물지표 : 원유 재고 감소, 휘발유 재고 증가, 원유생산 정체, 원유수요 부진 등
 - 원유 재고는 6.23일 4.54억배럴로 5월 마지막 주 대비 -597만배럴(-1.3%). 반면 휘발유 재고 +594만배럴(+2.7%), 증류유 재고 +775만배럴(+7.3%) 등은 예상과 달리 증가
 - 원유생산은 6월초 일일 1,240만배럴로 증가했으나 월 후반 1,220만배럴로 회귀, 선행 지표인 시추기는 24기 감소(-4.2%). 원유수요는 2,022만배럴로 5년 평균을 2.7% 하회



- OPEC 및 중국 지표 : 사우디 OSP(對亞) 상향, OPEC 감산, 中 원유수입 큰 폭 증가
 - 5월 OPEC 생산은 사우디와 UAE가 감산한 반면 나이지리아가 증산에 나서며 전월 대비 일일 -46만배럴. 중국 5월 원유수입은 정유사 가동률 회복 등으로 큰 폭 증가

	3월	4월	5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배럴)*	28.77	28.53	28.07	• 작년 4분기 대비 일일 103만배럴 낮은 수준
사우디 생산*	10.41	10.50	9.98	• 7월 한 달 간 100만배럴 추가 감산 예고
사우디 OSP(對亞)**	\$2.8(5월인도)	\$2.55(6월인도)	\$3.0(7월인도)	• 對美, 對유럽 OSP는 더 큰 폭 인상
중국 원유수입(백만톤)**	52.31	42.41	51.44	• 전년동월 대비 +12.3%, 1~5월은 +6.2%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*OPEC, **Bloomberg

□ [관전포인트] 러시아 생산, 중국 정유사 수입쿼터, 이란 핵협상, 미국 셰일 시추활동 등

- 러시아 원유수출, 감산(3월~) 불구 최근까지 견조세 유지
 -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일일 50만배럴 감산을 시행 중인 가운데 6월 원유수출은 중순까지 일일 363만배럴(4주 MA)로 감산 직전인 2월보다 25만배럴 증가
 -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對中 및 對印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, 이들을 통한 對서방 우회수출도 지속되고 있어 서방의 제재 효과가 반감하는 것으로 평가
- 중국 정유사들의 원유수입 쿼터 20% 상향
 - 中 정부는 민간 정유사들에게 6,228만톤 규모의 3차 원유수입 쿼터를 부여.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총 쿼터는 1.941억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% 증가
 - 이번 수입쿼터 상향 및 5월 원유 수입 호조(역대 세번째 규모)로 중국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
- 이란 핵협상 복원 시 빠른 시일 내 이란산 원유수출 확대 예상
 -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EU와 이란도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 제기
 - 불확실성이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핵합의 복원 시 이란은 원유수출 확대에 나설 전망 (※5월 이란 원유수출은 일일 150만배럴 규모, 핵협상 탈퇴 전인 '18년에는 250만배럴 내외. Kpler)
- 미국 원유시추기(oil rig) 작년 4월초 수준으로 감소, 향후 시추활동 부진 예고
 - 시추기는 연초 623기에서 6.23일 546기로 12% 감소했으며, 팬데믹 이전 대비 300기 이상 적은 수준. 유가 약세 지속 및 임금 등 비용 상승으로 당분간 감소세 지속 소지

□ [전망] 국제유가는 연준의 매파적 성향,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 되면서 당분간 현재의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, 주요국 경제지표 회복세가 확인된 이후에 반등이 본격화될 전망

-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국면에 빠지지 않는 한,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제한적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6월(a) ¹⁾	'23.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	2Q(f) ²⁾
WTI	70.27	77(-3)	79(-5.5)	82(-)	80(-4.5)
브렌트	74.98	82.2(-3.3)	85(-4)	86.1(-1.9)	86.5(-2.5)

주: 1) 6월 평균값 2) 6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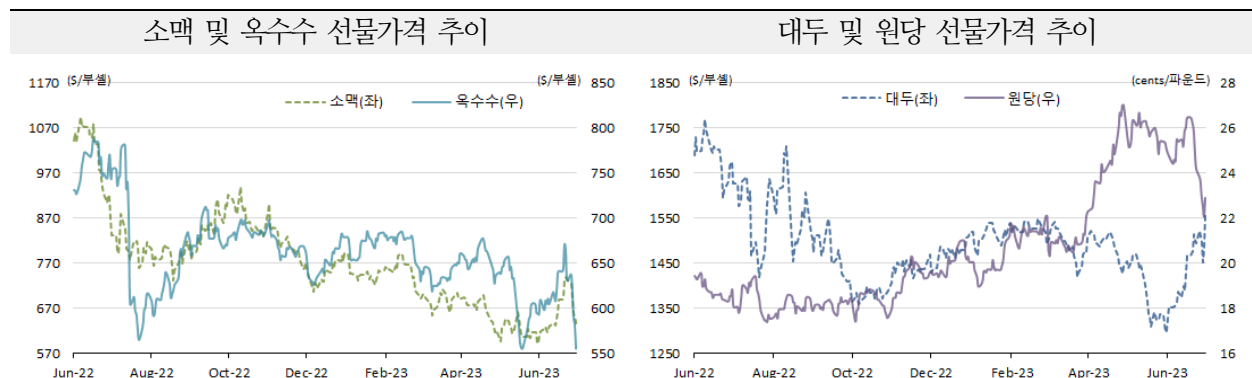
3. 곡물

□ [6월 시황] CBOT 소맥 전월말 대비 +7.1%, 옥수수 -6.6%, 대두 +19.8%

- 미국 북-중서부 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작황 우려가 제기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맥과 대두는 큰 폭 반등. 옥수수는 미국 파종면적 증가로 월 후반 하락 전환
- 원당 가격은 가격부담 및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. 코코아 가격은 엘니뇨에 따른 작황 우려와 낮은 재고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등(+10.3%, 금년 +27.6%)

품목	5월말	6월말	전월말비 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소맥(cents/부셸)	594.25	636.25	+7.1	-19.7	-26.8	901.67	686.66
옥수수(cents/부셸)	594.00	554.50	-6.6	-18.3	-25.4	693.89	641.75
대두(cents/부셸)	1,299.75	1557.25	+19.8	+2.5	-7.0	1,550.66	1470.21
쌀(\$/cwt)	17.29	18.06	+4.4	0.0	+9.9	16.51	17.49
원당(cents/파운드)	25.06	22.89	-8.7	+14.2	+21.6	18.82	22.91

주 : CBOT-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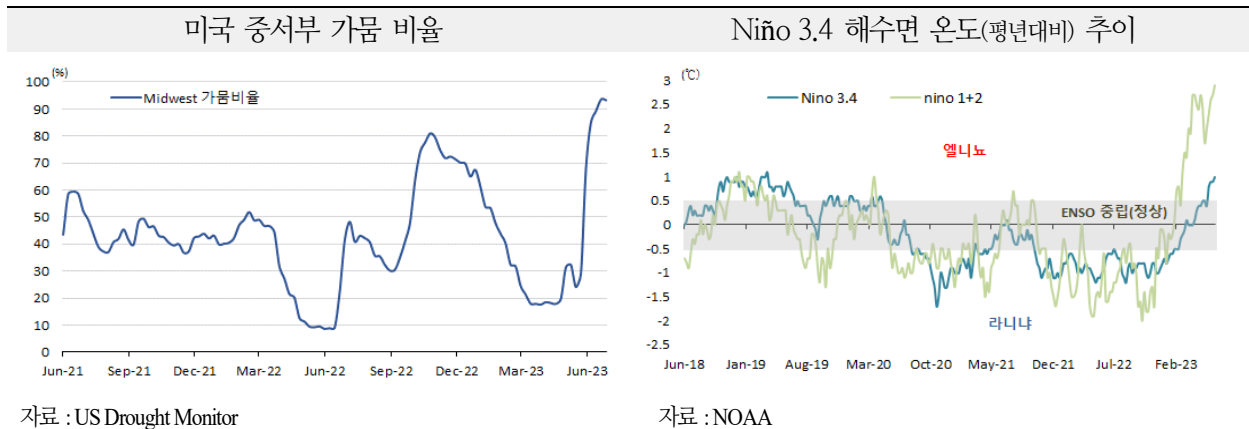
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- 미국 곡물 품질 : 옥수수의 상급비율은 전년동기 및 한 달 전 대비 큰 폭 하락, 대두 상급비율도 전년동기를 14%p 하회. 수확이 시작된 겨울밀(~8월)은 다소 부진한 상황

	품질: 上級비율(Good/Excellent ratio)			수확률		
	6.25	5.30	전년동기	6.25	전년동기	'18~'22 평균
소맥(겨울밀)	40%	34%	30%	24%	39%	33%
소맥(봄밀)	50%	-	59%	-	-	-
옥수수	50%	69%	67%	-	-	-
대두	51%	-	65%	-	-	-

자료 : USDA

- 농업기상여건 : 美 중서부 건조 지역 급증, 유럽, 가뭄 확산 조짐, 엘니뇨 국면 진입
 - 옥수수·대두 재배지역인 美 중서부의 가뭄 비율은 5월 중순 24%에서 6.27일 93%로 급등했으며, 봄밀 주산지인 노스타코타주 역시 19% → 49%로 증가. 파종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곡물 품질의 추가 저하가 우려(US Drought Monitor)
 - 현재 유럽의 1/3이 가뭄의 영향권에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의 저수지 수위가 크게 감소했으며, 프랑스와 스페인도 물 부족 상황(European Drought Observatory)
 - 동태평양 적도(Niño 3.4) 해수면 온도는 6월 중순 평년 대비 +1.0℃로 4년래 최고치로 상승. 엘니뇨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가뭄, 홍수, 폭염 등 많은 기상재난과 지구 온난화 가속화가 우려



- 세계 곡물수급 : 美 농무부는 '23/'24년 세계 생산 전망을 전월 대비 +0.5% 상향조정한 가운데 소맥의 경우 생산 1.3%, 기말재고 2.4%로 비교적 큰 폭 상향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톤)>

	'22/'23	'23/'24		전년비	전월비		'22/'23	'23/'24		전년비	전월비
		5월	6월					5월	6월		
곡물						소맥					
생산	27.44	28.20	28.34	3.3%	0.5%	생산	7.89	7.90	8.00	1.5%	1.3%
소비	27.69	28.10	28.18	1.8%	0.3%	소비	7.93	7.92	7.96	0.4%	0.6%
기말재고	7.65	7.70	7.81	2.1%	1.5%	기말재고	2.67	2.64	2.71	1.5%	2.4%
재고율	27.6%	27.4%	27.7%	+0.1%p	+0.3%p	재고율	33.6%	33.4%	34.0%	+0.4%p	+0.6%p
옥수수						대두					
생산	11.51	12.20	12.23	6.3%	0.3%	생산	3.70	4.11	4.11	11.1%	0.0%
소비	11.63	12.04	12.06	3.7%	0.2%	소비	3.64	3.86	3.86	6.1%	-0.1%
기말재고	2.98	3.13	3.14	5.5%	0.3%	기말재고	1.01	1.23	1.23	21.7%	0.7%
재고율	25.6%	26.0%	26.0%	+0.4%p	-	재고율	27.8%	31.7%	31.9%	+4.1%p	+0.2%p

자료: USDA WASDE('23.6월)

□ [관전포인트] 미국 곡물 품질 악화, 금융자금 증가, 흑해곡물협정 종료 기로 등

- 미국 중서부 건조기후 심화 및 장기화 경우 옥수수과 대두 수율(yield) 저하 불가피
 - 5월 후반부터 시작된 고온건조한 날씨가 엘니뇨로 인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옥수수과 대두의 품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. 특히 최대 생산지인 일리노이주의 옥수수 상급품질 비율은 35%로 '88년 이후 최저 수준
 - 일부에서는 美 농무부의 6월 예상 수율보다 옥수수는 10% 이상, 대두는 5%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(Gro Intelligence)
- 주요 곡물 선물에 대한 금융자금 유입 전환
 - CBOT 옥수수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пози션은 6월 중순 (+)로 전환된 가운데 6.27일 11.6만계약으로 4개월래 최고치 기록. 대두의 순пози션도 5월말 1.8만 계약에서 6.27일 11.0만계약으로 큰 폭 증가했으며, 소맥의 순пози션은 (-)폭 축소
 - 연준이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으나, 美 중서부의 기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기성 금융자금의 유입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
- 흑해곡물협정 7월 종료 가능성
 -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산 농산물 및 비료 수출 제한 해제와 은행들의 SWIFT 복귀 등을 요구해 왔으며,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.18일 이후 흑해곡물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위협
 - UN 중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흑해곡물협정의 종료 가능성에 무게. 우크라이나는 다른 수출경로를 통해 곡물수출을 이어가는 플랜B를 마련

□ [전망] 국제곡물가격은 우려했던 '파종 후 기상악화'가 가시화된 가운데 정치적 변수(흑해곡물협정)도 가세함에 따라 상방압력이 높아질 전망. 다만 날씨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가격 진폭이 크게 확대될 소지

-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를 반영한 주요 기관들의 '23/'24년 세계 곡물수급 전망 조정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6월(a) ¹⁾	'23.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	2Q(f) ²⁾
소맥	660.06	645(-68)	675(-25)	615(-85)	683(-37)
옥수수	615.17	600(-13)	610(-37)	579(-22)	572(+22)
대두	1,430.71	1,362(-46)	1,374(-106)	1,236(-114)	1,320(-100)

주: 1) 6월 평균값 2) 6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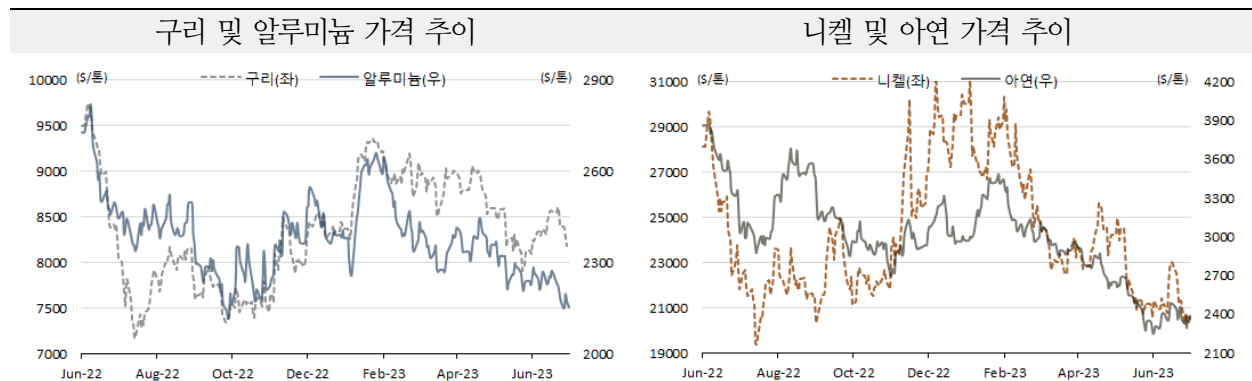
4. 비철금속

□ [6월 현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+2.8%, 니켈 -0.3%, 아연 +6.2% 등

-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부양,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구리와 아연, 납은 반등. 반면 니켈과 알루미늄은 공급과잉 전망 등으로 약세 지속
- 금 가격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. 철광석은 중국의 금리인하 및 추가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3개월 만에 반등

품목	5월말	6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구리(\$/톤)	8,089	8,316	+2.8	-0.7	+0.7	8,788.4	8,725.0
알루미늄(\$/톤)	2,246	2,152	-4.2	-9.5	-12.0	2,710.9	2,363.0
니켈(\$/톤)	20,588	20,516	-0.3	-31.7	-9.6	25,617.5	24,352.7
아연(\$/톤)	2,248.5	2,388.0	+6.2	-19.7	-24.4	3,439.6	2,827.9
납(\$/톤)	2,013	2,100	+4.3	-8.4	+10.1	2,144.6	2,115.5
금(\$/온스)	1,962.73	1,919.35	-2.2	+5.2	+6.2	1,802.5	1,934.4
철광석(\$/톤)	98.85	108.92	+10.6	-2.5	-5.7	112.9	112.0

주 :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LME

자료 : Bloomberg, LME

□ 주요 지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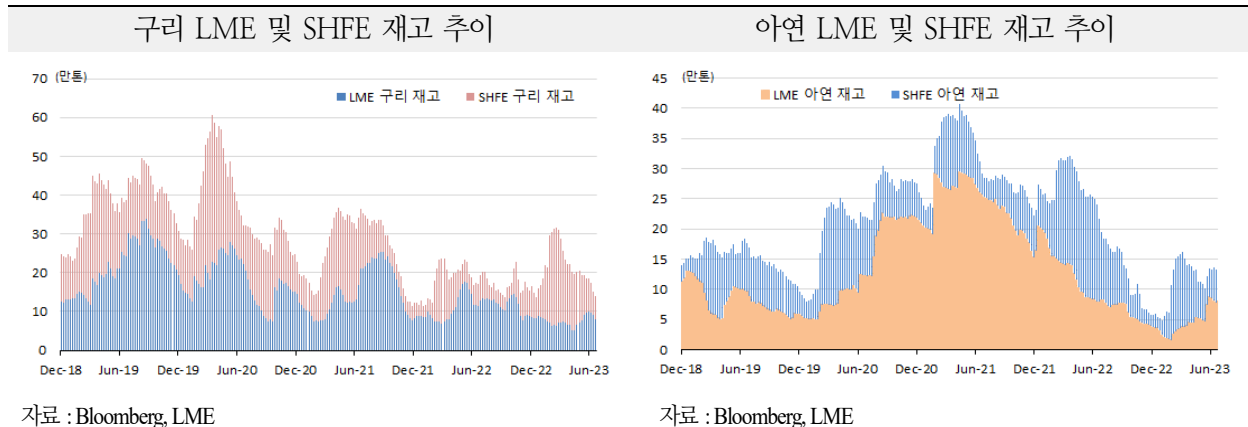
- 중국 경기 : 제조업지수 기준선(50) 상회, 산업생산 부진, 주택시장 부진 등

	4월	5월	6월	비고
차이신 PMI	49.5	50.9	50.5	• 예상치(50.2) 상회하며 2개월 연속 경기확장
산업생산(% yoy)	+5.6%	+3.5%	-	• 내구재 수요 부진 등으로 예상(+3.6%) 소폭 하회
신규 주택가격(% mom)	+0.4%	+0.1%	-	• 금년 초 반짝 회복세 후 부동산 경기 재위축 조심

자료 : Bloomberg

○ 거래소 재고 : 구리 및 알루미늄은 감소, 아연과 니켈은 증가

- 6.30 구리 재고는 5월 마지막 주 대비 LME에서 -2.5만톤(-25%), SHFE에서 -1.8만톤(-21%) 등 총 -4.3만톤(-23%)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로 감소. 알루미늄도 LME와 SHFE에서 총 -9.3만톤(-13%) 기록
- 반면, 아연 재고는 LME와 SHFE 합계 +1.8만톤(+15%)으로 연중 저점(1.6일)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, 니켈도 SHFE를 중심으로 소폭이나마(+0.3만톤, +7%) 증가



○ LME 비철금속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매수포지션 증가

- 구리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포지션은 5.26일 -0.2만계약에서 6.23일 +2.2만계약으로 대폭 호전. 알루미늄의 순포지션도 -0.1만계약 → +0.5만계약으로 플러스 전환
- 아연의 순포지션은 -1.1만계약 → -0.7만계약. 경기침체 우려, 위험선호 심리 약화 속 중국 경기부양 기대 및 저가매수세 유입에 따른 것으로 평가

○ LME 비철금속 현물 프리미엄(현물가격-3개월물 가격)은 수요 부진으로 약세

- 구리 현물 프리미엄은 6월 후반 \$31로 8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했으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6.30일 \$6.55 기록. 다만 5월 중순의 연중 저점(-\$66.26)보다는 높은 수준
- 알루미늄의 현물 프리미엄은 5월말 \$40에서 6월말 -\$41로 큰 폭 하락. 니켈 프리미엄도 6월 중반 -\$70대에서 -\$169.9로 마이너스 폭 확대

□ [관전포인트] 중국 추가 경기부양 기대, 주요국 통화정책, 니켈 공급과잉 전망 등

○ 중국,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지표로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

- 리오프닝 이후 내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, 부동산시장 부진과 청년실업 증가 등이 이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추진 (※인민은행은 전월 단기정책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으나 시장은 인하 폭에 실망)

- 주요 IB들은 금년 중국 성장률 전망을 5월초 6%에서 월 후반 5.8%로 하향조정하며 경기회복력 약화를 예상하면서도 5%대 중속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
-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 매파적 성향 지속
 - BOE는 전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(예상 25bp 인상)했으며 노르웨이와 호주, 캐나다 역시 금리인상을 재개. 美 연준은 6월 FOMC에서 금리인상을 중단했으나 매파적 입장을 강화하고 추후 2차례 인상을 시사
 -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각국의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이 약화되고 위험선호 심리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
- 세계 니켈 수급, 인도네시아의 빠른 증가세로 공급과잉 장기화 예상
 -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에 힘입어 금년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며 세계 수급은 14.2만톤 공급과잉 예상. 공급과잉은 최소 '27년까지 이어질 소지(Macquarie)
 - 인도네시아 생산은 현재 진행 중인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증가세를 지속하며 '29년 세계 점유율이 75%에 육박할 가능성(Macquarie)
- [전망] 세계경제 부진과 긴축적인 금융환경 등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하방압력이 높아질 전망. 다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는 한 가격이 현 수준을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
-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 규모와 美 달러화 향방이 비철금속 가격에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6월(a) ¹⁾	'23.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 (f) ²⁾	2Q(f) ²⁾
구리	8,396.7	8,500(-300)	8,450(-224)	8,595(-213)	8,716(-375)
알루미늄	2,221.5	2,362(-138)	2,425(-100)	2,410(-120)	2,462(-137)
니켈	21,370.0	22,000(-1,025)	20,610(-2,070)	20,750(-1,505)	22,000(-1,867)
아연	2,381.6	2,500(-300)	2,550(-240)	2,625(-225)	2,700(-297)

주: 1) 6월 평균값 2) 6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0h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